

소설 텍스트의 중한 번역방법 연구 - ST의 '문화소'와 TT의 '접속 표지'를 중심으로

이 현 주
(한국외대)

1. 서론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탄생한 또 하나의 세계로서 작가의 손끝에서 가공된 환경에서 인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텍스트 안의 가공된 환경과 인물은 대부분 그 작가가 속한 환경을 반영하기 마련이고 소설 안에서는 그 작가가 속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언어의 특징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산된 소설이 다른 문화와 언어권으로 전달되어 새로운 독자를 만날 때, 번역의 과정은 피할 수 없고, 소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모든 사회·문화적 배경과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에서 드러나는 그 언어적 특징이 잘 번역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언어적 특징'은 '문화소(cultural elements)'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문화소'는 한센(D.Hansen 1996)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서 어느 한 언

어권내에서 공유하는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특징으로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체적인 언어를 포함하여 비언어적인 현상과 제도(김효중 2005: 523)를 가리킨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서로 공유한 적 없는 것들을 ‘번역해 내야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번역가는 이 불가능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번역방법을 모색한다. 사실 ST를 마주하고 ‘번역’의 작업을 통해 TT를 생산해내는 사람이라면 번역을 전문적인 업으로 삼아 번역을 하든, 취미 삼아 번역을 하든, 배우는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번역을 하든, ‘최고의 번역’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번역’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번역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텍스트를 번역하는 경우, 번역가에게 목표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의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 ‘문화소’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번역하여 TT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관한 해결방법은 번역가마다 모두 다르게 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동일한 ST를 두고 열 명의 번역가가 번역을 한다고 할 때, 열 개의 상이한 번역본 TT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설 텍스트에서 ‘문화소’에 관한 어휘와 표현의 번역은 TT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바로 이 때문에 소설 텍스트를 비롯하여 문학 번역에 대해 논의할 때, ‘문화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문화소’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ST와 TT를 일대일로 병렬하여 대조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T 안에서 나타나는 어휘와 표현이 TT에서 잘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중국 소설과 이의 한국어 번역본을 병렬, 대조하여 중국 소설 내의 ‘문화소’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하나의 ST와 하나의 TT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가 각각 번역한 여러 개의 TT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번역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사실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추어 번역가’ 혹은 ‘비전문 번역가’의 번역은 대부분 영상 번역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전문 번역가’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의 자막

이나 노래의 가사를 번역하여 다른 이와 공유한다. 이런 현상을 '팬자막' 혹은 '팬서브(Fansub)'¹⁾라고 한다. 이 같은 '팬 번역(Fan Translation)'은 초반의 조악했던 수준을 뛰어 넘어 최근에는 번역작업, 자막작업, 자막과 영상을 맞추는 작업, 최종편집 등이 조직적인 분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문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배포되는 웹소설이나 웹툰을 제외하고, 소설, 에세이, 시 등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경우, 영상에 비해 ST 원본을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 번역처럼 비전문가, 아마추어, 팬 차원에서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²⁾. 게다가 문학 번역은 '번역 비평'이나 '오역 논쟁' 등의 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문학 번역의 영역은 마치 '전문 번역가'들을 매개로 한 비평가나 작가, 연구자 등 그들만의 고유 영역처럼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추어 번역가'들의 활발한 번역 참여를 기대하기 더 어렵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의 번역방법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ST를 기준으로 하여 ST에 나타나는 '문화소'가 TT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ST와 이의 여러 개의 TT를 병렬하여 살펴보겠다. 그러나 번역의 방법이나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반드시 ST를 기준으로 하여 TT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ST를 살펴보기 이전에 TT를 기준으로 하여 TT에서 나타나는 특정 어휘나 표현을 살펴보고 ST의 무엇이 이렇게 번역되었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³⁾. 이는 다시 말해

- 1) 이는 'Fan-subtitle'의 줄임말로써 영화, TV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영상물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직접 번역하고 제작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유포하는 자막을 가리킨다. 이지민(2015: 165)은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정보의 소비자의 머물렀던 일반 대중이 자막 번역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팬자막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2)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하며, 본고에서는 '아마추어 번역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 3) 이와 관련된 예로, 투리(Toury 1995)는 라슨(Larson 1984)과 뉴마크(Newmark 1988)에 이어 은유의 번역전략을 보충하여 제시하면서 ST에서 발견된 은유로부터 시작되고 확인된 은유적 표현 이외에도 TT의 측면에서 은유가 아닌 곳에 은유 표현을 넣거나 아무 표현도 없던 곳에 은유표현을 첨가하는 것도 번역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신진원 외 2011: 137 재인용).

분석의 초점을 ST 중심에서 TT 중심으로 바꿔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 ST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휘나 표현 등의 언어현상이 TT에서 추가되어 번역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ST에서 나타나는 ‘문화소’의 번역방법 이외에도 TT에서 나타나는 ‘접속 표지’의 번역양상을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는 접속 표지가 전후 문맥에 따라서 쉽게 생략이 가능하며⁴⁾, 한국어만큼 명시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2.1 ‘문화소’와 번역

‘문화소’는 동일한 문화권 내의 구성원이라면 부연 설명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바로 인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 언제든지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소 번역을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과 함께 ‘인지적으로 축적된 지식’도 함께 필요하다(김도훈 2006: 4). ‘인지적으로 축적된 지식’이 필요해 해당 지식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을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TT 안에서 이에 관한 모든 것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문화소’와 관련한 번역 연구는 대부분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분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문화소’를 범주화하여 진행한 번역연구를 살펴보겠다. 이근희(2003)는 ‘문화소’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를 ‘문화와 밀접한(culture-bound) 상관어’로 정의하면서 고유명사, 특정문화 혹은 특정사건과 관련된 어휘, 관용구, 도량형의 단위, 지위 혹은 직위, 날짜의 표기방법 등과 같이

4) 안기섭(2011: 73)은 중국어는 굴절어나 첨가어로서의 성격이 강한 언어들에 비해 접속되는 둘 이상의 성분 사이에 쓰이는 접속어(Connectives)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김효중(2005)은 '청개구리', '곡비' 등과 같은 어휘의 측면의 번역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더운 밥 먹고 식은 말 하겠나?' 등과 같은 텍스트의 측면의 번역으로 나누었고, 강수정(2010)은 문화소의 부등성의 측면에서 실제적 부등성, 형식적 부등성, 의미적 부등성, 한자 사용의 부등성 등으로 부등성을 분류하여 중한 번역의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소'의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학 텍스트 혹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텍스트나 홍보 텍스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 장르에 연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문학이나 관광 및 홍보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보다 독자의 반응이 중요한 텍스트로서 그 문화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는 어휘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 번역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학 텍스트의 경우 번역의 목적이 ST 독자가 작품을 읽고 느꼈던 감정들을 TT 독자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에서 유발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있고, 관광이나 홍보 텍스트의 경우,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 관습이 드러나는 어휘를 많이 포함하는 텍스트 장르의 특성상을 TT 독자들이 이해가능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장르별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문화소 관련 논문 가운데, 노진서(2007)는 한국어의 시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문화소와 관련된 어휘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면서 총 네 가지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1) 상위어에 의한 일반화(generalization) 전략, 2) 풀어쓰기에 의한 구체화(specification) 전략, 3) 문화대체어로의 대체(substitution) 전략, 4) 음차(emprunt) 번역 전략 등이다. 이 가운데 구체화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대체, 음차, 일반화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야오캉(2012)은 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욕설 표현을 하나의 '문화소'로 간주하고 맥락을 기반으로 한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등가의 각도에서 형식적 등가나 의미적 등가보다는 효과적 등가를 강조하며 작품 속 상황과 인물에 부합하여 번역하는 '맥락 기반 번역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 및 홍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문화소 관련 논문 가운데, 김도훈(2006)은 영어로 번역된 부산 관광지의 안내 표지판과 책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번역양상을 분석하였고 총 다섯 가지의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1) 상위어 사용 전략, 2)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 3)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전략, 4) 부연설명 제공 전략, 5) 독립적 어휘 사용 전략 등이다. 김혜림 외(2016)은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누리집의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에 관한 분석을 한 후 총 네 가지의 번역방안을 제안하였다. 1) 문화재나 역사 기록물에서 보이는 한자어를 그대로 옮겨주는 한자역, 2)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식 의미역을 지양한 의역, 3) 2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된 어휘를 번역할 때 ‘한자역+의미역’ 등과 같이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재하여 번역하는 혼역, 4) 음역과 원음과 의미를 결합한 음의 겸역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2.2 ‘접속 표지’와 번역

하나의 문장 내에서 단어의 단위를 넘어 둘 이상의 여러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텍스트의 결속성⁵⁾이란 텍스트의 정보 단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론적 연결구조를 가리킨다(이상원 2002: 128). 할리데이와 헨슨(Halliday&Hanson 1976)은 문장과 텍스트의 결속은 단어나 구, 절이나 문장의 구성성분이 수행하는 문법기능을 함수로 하여 지시(reference), 대치와 생략(substitution&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결속(lexical cohesion)으로 묶여 있다고 하였다(박상수 2013: 114 재인용). 이 가운데 ‘접속’은 대개 접속어를 통하여 실현되는데, ‘접속어’는 번역가가 ST의 의미를 명시화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언어 표지다. 즉, ST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번역가가 번역의 과정에서 접속어를 덧붙여주어 TT에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에서는 ‘접속어’가 주로 접속부사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 문장의 의미를 뒤 문장에 이어 주면서 그것을 수식하는 부사를 가리킨다(장기열 2003: 176). 이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안정아 외(2014)는 “접속 표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5)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augrande&Dressler 2008)는 텍스트의 특성을 응집성(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등 총 7가지로 나눈 바 있다.

접속 표지는 두 접속 대상 간의 의미적 관계가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접속 조사, 연결 어미, 접속 부사와 같이 접속 기능을 표시하는 명시적 문법 장치들 외에도 어휘적 결속 및 시간적, 논리 의미론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일부 어휘들도 접속 표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179)

‘접속 부사’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과 같이 문두에 쓰이며, ‘접속 조사’는 ‘~와/과, ~랑’ 등처럼 하나의 문장 중간에 쓰이고, ‘연결 어미’는 ‘~면서, ~니까, ~도록’ 등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타나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접속 표지와 관련된 번역연구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최진실(2009/2010/2011)의 연구가 있다. 특히 최진실(2011)은 연구자가 본인이 이미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접속 부가어의 의미대응이 한영 번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영한/한영 소설 텍스트를 각각 7권씩 코퍼스로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의 ‘and/but/so/then’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고, 역으로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그 대응어들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분석하면서 그 대응비율을 분석하였다.

김혜림(2014)은 신문 사설 코퍼스를 중심으로 하여 단순화와 명시화를 분석하였는데, 명시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중 번역 신문사설 코퍼스와 순수 중국어 신문사설 코퍼스의 접속사 빈도를 살펴본 결과, 번역된 신문사설 코퍼스에서 더 많은 접속사를 사용하여 순접, 역접, 전환 등의 논리관계가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통계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3. 연구사례

3.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작가 쑤통(蘇童)의 단편소설 『홍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쑤통은 1980년대 문단에 데뷔한 작가로서 중국 당대문단에서 가장 재능있고 기대가 되는 작가⁶⁾로 평가받는다(한영자 2014: 366). 그의 몇 작품은 이미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

고,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장이모우 감독의 1991년작 「홍등(紅燈)」 역시 그의 작품 『처와 첩들(妻妾成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쑤통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비운의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이 주로 많다(7). 본고에서 살펴볼 단편소설 『홍분』 역시 신중국 수립 직후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기녀들의 이야기로 작가는 두 명의 기녀 치우이(秋儀)⁸⁾와 샤오어(小萼)의 불행한 삶을 통해 기녀들의 사상을 ‘개조’하고자 했던 사회의 움직임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陈乐 2003: 69), 남자 주인공 라오푸(老浦)의 몰락을 통해 구시대의 부유한 지주의 자제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도태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홍분』은 2007년도에 출판되었으며, 번역가 전수정이 번역하였다. 전수정은 국내 중국의 당대 문학작품들을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로서 차오원쉬엔(曹文軒), 아라이(阿来) 등 중국의 여러 유명 작가들의 번역을 맡아 하였다. 또한 십 년 이상 문학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문 번역가’의 번역본으로 분류하여 이미 출판된 해당 번역본을 대상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반면, ‘아마추어 번역가’의 번역본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학생들이 번역한 것⁹⁾으로서, 이들은 아직 졸업 이전의 학생이지만, 통번역대학원의 전문적인 통번역사의 양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는 모두 ‘전문 번역가’로서 통번역 활동을 한다. 따라서 졸업 이전에 참여한 해당 번역본을 ‘아마추어 번역가’의 번역본으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ST 『홍분』은 공백을 포함하여 총 29,581자에 달하는 단편소설이며, TT로는 이미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전문 번역가의 번역본 ‘PrTT’와 한국의국어대학교

-
- 6) 이 밖에도, 오르한 파묵, 주제 사라마구, 토니 모리슨 등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과 함께 영국 케논게이트 출판사의 ‘세계신화총서’에 참여해 집필한 『푸른 노예』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올랐을 만큼 그 명성이 비교적 큰 작가로 볼 수 있다(경향신문 2006.6.13).
 - 7) 장윤선(2010: 140)은 그의 문학 작품은 마치 ‘여인천하’라고 할 정도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여성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많다고 하였다.
 - 8)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올바른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추이’가 맞으나, 본고에서는 ‘치우이’로 통일하겠다.
 - 9)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총 10명의 학생들이 2011년 1학년 1학기에 번역에 참여하였다.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 번역한 아마추어 번역가의 번역본 'StTT1', 'StTT2', 'StTT3'¹⁰⁾을 병렬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3.2 ST에서 나타나는 '문화소'의 번역 양상

3.2.1 고유명사의 번역

ST 전체에서 나타나는 '문화소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고유명사이다. 이는 인물과 배경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소설 텍스트의 특성상 인명이나 상호명, 건물명, 도시이름, 지역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유명사를 번역할 때, 특히 소설 텍스트에서는 음차의 번역방법이 많이 나타난다. 즉 인물의 이름과 인물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 혹은 지역의 이름, 상점이나 건물의 이름 등은 대부분이 해당 언어권에서 소리 나는 대로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 때, 「외래어 표기법」¹¹⁾에 맞추어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 번역본을 보면 적지 않은 번역가 본인이 발음하고 들리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10) 총 10명의 학생이 번역에 참여하여 10개의 번역본이 존재하나, 이 가운데 세 명 학생의 번역본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해당 번역에 참여한 학생들은 필자의 학생들도 아니었고, 학생에 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선정하였기에 선정 과정에서 필자의 어떠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학생에 대한 평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1) 「외래어 표기법」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에서는 '표기의 원칙', 제2장에서는 '표기 일람표', 제3장에서는 '표기 세칙', 제4장에서는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비롯하여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언어의 자모를 구체적으로 한국어로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예외적인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번역가별 인명의 번역 양상

번역가 ST	PrTT	StTT1	StTT2	StTT3
秋儀	치우이	치우이	치우이	치우이
小萼	샤오어	샤오어	샤오어	샤오어
老浦	라오푸	라오푸	미스터 푸	라오푸
瑞凤	뤄이펑	뤄이펑	레이펑	뤄이펑
冯老五	펑랴오우	펑씨	펑사장	펑랴오우
悲夫	페이후	‘슬픈 아이’라는 뜻의 베이푸라는 이름	베이푸(불쌍한 남자라는 의미)	빼이푸

우선 「외래어 표기법」에 맞춘 “秋儀”와 “瑞凤”의 올바른 표기법은 ‘추이’와 ‘뤄이펑’이 맞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번역가 모두 중국어의 ‘qiu’를 ‘추’가 아닌 ‘치우’라고 번역하였고 후자의 ‘rui’는 ‘뤄이’, ‘뤄이’, ‘레이’ 등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중국어의 ‘cu’와 ‘qiu’는 모두 한국어에서는 ‘추’로 표기된다. ‘qiu’는 제2장에 따라 원래 ‘추’로 표기되지만 제3장에서 제시하는 세칙에 따라 ‘추’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상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어 발음 표기는 실제 발화되는 소리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qiu’ 역시 ‘치(오)우’로 발음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로 표기되는 것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에 따라 네 명의 번역가 모두 여주인공의 이름 “秋儀”를 실제 소리 나는 것과 가깝게 ‘치우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小萼”와 “老浦”의 번역을 보면, 모두 ‘샤오어’와 ‘라오푸’로 올바르게 표기되었지만 이는 중국어의 호칭의 관습과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중국어의 이름을 번역할 때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 ‘小+성씨’ 혹은 ‘老+성씨’와 같이 사람의 성씨(姓氏) 앞에 ‘小’와 ‘老’를 붙여 부른다. 다만 이는 비교적 가까운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애칭에 가까우며 ‘小’는 동년배나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부를 때, ‘老’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한다¹²⁾. 따라서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독자에

12)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호칭어는 화자나 청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며 일부 연구에서 35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법을 나누기도 하지만 현대 중국인들의 언어습관에 따르면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부르는 것으로

게는 '샤오어'와 '라오푸'는 하나의 이름으로 보이기 충분하며, 특히 소설 중반부에 남주인공 '라오푸'가 또 다른 여주인공 '샤오어'에게 본인의 어머니를 '푸마님'이라고 부르며 된다고 하는 장면은 중국어를 모르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라오푸'와 '푸마님' 두 모자가 '푸(浦)'씨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그의 어머니를 '푸마님'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밖에, “馮老五”라는 이름 역시 중국어의 호칭의 관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馮老五”는 ‘평 씨 집안의 다섯째’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TT에서는 전혀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다. 물론 해당 작품에서 “馮老五”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작품의 이해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라우우’, ‘평씨’, ‘평사장’ 등 다양하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悲夫”의 올바른 표기법은 ‘베이푸’이며, 해당 인물의 이름은 “馮老五”와는 달리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소설 속 인물들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비교적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아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사례 1)

ST : 老浦给儿子取名悲夫。小蓼说, 这名字不好, 听着刺耳, 不能叫乐夫或者其他名字吗?

PrTT : 라오푸는 아들의 이름을 페이후(悲夫)라고 지었다. 샤오어가 말했다. “이름이 안 좋아. 너무 자극적인 이름 아니야? 러후(樂夫)¹³⁾라고 부르거나 다른 이름을 지어주면 안 돼?”

StTT1 : 라오푸는 자신의 아들에게 ‘슬픈 아이’라는 뜻의 베이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에 샤오어가 말했다. “이 이름 별로인 거 같아요. 귀에 거슬려요. 즐거운 아이란 이름도 있고 다른 좋은 이름 많잖아요.”

보인다(이명아 2016: 207).

13) PrTT에서는 괄호를 통한 한자 병기가 자주 보이는데,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간체자’가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사용하는 ‘한자’와 같은 ‘번체자’로 표기하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중한 번역문에서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표기하여 주는 것이 맞다. 본고에서는 우리말의 한자 어휘 또는 인용에서 보이는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표기하고 중국어 어휘를 나타내는 것은 모두 ‘간체자’로 통일하기로 한다.

StTT2 : 미스터 푸는 아들에게 베이푸(불쌍한 남자라는 의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이름은 듣기 좋지 않아요. 콰이푸(행복한 남자라는 의미)나 다른 이름으로 지어주면 안 되요?”

StTT3 : 라오푸는 아들에게 슬픈 남자라는 뜻의 빼이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샤오어가 말했다. “이름이 안 좋아요. 귀에 거슬리잖아요. 슬프다는 글자 말고 즐겁다는 글자나 다른 글자를 쓰면 안 돼요?”

‘베이푸’라는 이름은 ‘러푸’라는 이름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름에서 드러나는 ‘슬프다’는 의미의 ‘悲(베이)’와 ‘즐겁다’는 의미의 ‘乐(러)’는 작품 속의 남자 주인공 라오푸의 심정을 잘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언어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든 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rTT의 번역을 보면, 샤오어가 ‘페이후’란 이름이 너무 자극적인 이름이니 ‘러후’가 좋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도, 비록 한자를 병기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어나 한자의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는 이 이름이 왜 자극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PrTT는 한자를 병기하기만 하고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채 음차의 번역방식만을 취하였다. 반면, StTT2는 역주의 방식으로 StTT1과 StTT3은 관형어로 처리하여 부연 설명하여 모두 ‘슬프다’와 ‘즐겁다’는 의미를 첨가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2.2 음식이름의 번역

인명, 상호명, 건물명, 지명, 도시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어휘다. 이를 모두 ST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번역가별 중국 음식의 번역 양상

번역가 ST	PrTT	StTT1	StTT2	StTT3
烧饼	샤오빙(밀가루를 반죽하여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참깨를 뿌려 구운 빵-웁긴이)	샤오빙(밀가루 반죽을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 화덕 안에 붙여서 구운 빵)	샤오빙(烧饼)	샤오빙(밀가루를 반죽하여 원형 또는 사각의 평평한 모양으로 만들어 표면에 참깨를 뿌려 구운 빵의 일종-웁긴이)
猪蹄膀	족발	족발	-	족발
三鲜馄饨	삼선훈돈	삼선완탕	삼선(三鲜)훈돈	싼선훈돈자(해삼, 새우, 죽순, 버섯, 닭고기 가운데, 입으로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소를 넣은 훈돈자-웁긴이)
小笼包	고기만두	샤오롱바오	고기만두	샤오롱바오
咸菜	짬지	장아찌	장아찌	장아찌
猪排	돼지갈비	돈가스	돈가스	-
牛排	소갈비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罐焖鸡	닭고기	닭탕	관면지(罐焖鸡; 닭고기 요리의 일종)	관면지(과, 생강 등을 볶은 기름에 닭을 튀겨 만든 음식-웁긴이)
水晶包	만두	만두	수정포	수이징빠오(돼지비계와 백설탕을 넣어 만든 만두-웁긴이)
红蛋	붉은 계란	축하 달걀	축하 인사	붉은 계란(중국에서 출산을 축하하려고 산파나 친지에게 보내는 붉은 물감을 들인 계란-웁긴이)
羊汤	양고기국	양탕	탕	양고기 탕

위의 표를 보면 번역가별로 취하는 방식의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PrTT은 ‘샤오빙’을 제외하고 한자어 표기나 역주 등을 통한 부연설명을 지양하고 있다. 또한 “小笼包”, “罐焖鸡”, “水晶包”을 각각 ‘고기만두’, ‘닭고

기’, ‘만두’라고 번역하여 상위어의 번역방법을 취한다. 중국 음식 가운데에는 한국의 만두와 비슷한 음식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본고의 ST에 등장하는 “馄饨”을 비롯하여 “小笼包”, “水晶包”이외에도, “包子”, “水饺”, “薄皮包”, “水煎包”, “灌汤包” 등 굉장히 다양하다. 이는 만드는 재료나 방법, 요리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해당 요리가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국인에게는 모두 만두의 일종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반면, StTT의 번역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번역은 StTT3의 번역이다. StTT3은 중국의 문화적 특색이 뚜렷한 음식 이름의 경우, 음차의 방식으로 번역하면서 ‘역주’를 통해 부연설명을 덧붙여주었다. StTT2는 다른 번역에 비해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이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红蛋”의 번역을 살펴보자. 이는 글자의 의미대로 풀어보자면 ‘붉은 달걀’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관습과 관련이 있는 어휘다. 중국인들에게 붉은 색은 기쁜 일을 상징하며 붉은색을 매우 선호한다. ST에서 나타나는 ‘붉은 달걀¹⁴⁾’은 StTT3의 역주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삶은 달걀을 붉게 물들여 주변인들에게 선물하여 본인의 출산과 혼인 등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국에서 ‘미역국’이 단순히 음식의 범주를 넘어 출산 이후의 몸조리나 생일을 축하하는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 것과 같다. 이를 아래 사례의 문맥을 통해 살펴보자.

(사례 2)

ST : 说对了, 忘了告诉你小蓁生了个儿子, 八斤重¹⁵⁾呢。你吃到红蛋了吗?

PrTT : “맞다, 샤오어가 아들 낳은 일을 깜박할 뻔했네. 애가 태어날 때 4킬로그램이나 나갔더더라. 너 붉은 계란 얻어먹었어?”

StTT1 : “맞다, 깜빡 잊고 말 안 해줄 뻔했네. 샤오어가 아들을 낳았는데

14) ‘달걀’과 ‘계란’ 모두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낱말로 ‘계란’은 ‘鷄卵’이라고 표기 가능한 한자어인 반면, ‘달걀’은 순우리말로 국어사전에서는 ‘계란’을 ‘달걀’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15) 무게에 관한 도량형 역시 ‘문화소의 한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ST의 ‘8근’을 TT에서 모두 ‘4킬로그램’으로 대체하여 번역하였다. 중국어권에서 1근은 500g을 가리킨다.

글쎄 4킬로나 나가지 뭐야. 너도 축하달걀 먹었지?”

StTT2 : “아 맞아! 샤오어가 아들을 낳았대. 4킬로그램이라고 하더라. 축하 인사 하러 갔니?”

StTT3 : “맞다! 샤오어가 아들 낳았단 얘기를 깜박했네. 4킬로그램이었는데. 너도 붉은 계란(중국에서 출산을 축하하려고 산파나 친지에게 보내는 붉은 물감을 들인 계란-웁긴이) 먹었어?”

이는 루이핑이 치우이에게 샤오어의 출산소식을 전하면서 샤오어로부터 ‘붉은 달걀’을 받았느냐고 묻는 장면이다. PrTT는 부연설명 전혀 없이 “붉은 계란 얻어먹었어?”라고 그대로 직역하였다. 반면 StTT1은 ‘붉은 달걀’ 대신 ‘축하 달걀’이라고 번역하여 ‘紅蛋’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의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StTT2는 “축하 인사 하러 갔니?”라고 번역하여 ‘붉은 달걀을 선물 받아 출산 소식을 전해 듣는’ 피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미 출산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축하 인사를 하러 가는’ 능동의 의미로 전환¹⁶⁾되지만 상위의 개념으로 일반화하여 번역하여 줌으로써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붉은 달걀’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StTT3은 직역을 하고 ‘역주’를 달아 중국의 문화 관습의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하였다. StTT3과 같이 역주를 통한 부연설명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역주’가 분명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과연 독자의 이해를 고려한 결과가 오히려 독자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3.2.3 관용표현의 번역

관용표현에서 “관용”이란 ‘습관적으로 쓴다’는 의미의 한자어로서 관용표현이란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민현식(2003: 18-19)은 관용표현을 “일정 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16) 전체 작품의 문맥으로 볼 때, 해당 문장은 ‘능동’의 의미보다는 ‘피동’의 의미를 부각시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샤오어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라오푸는 치우이의 전 남자친구로서 두 인물의 관계와 성격을 고려하면 해당 문장을 ‘축하 인사를 하러 가다’라는 ‘능동’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표현”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유형을 “고사성어, 유행어, 관용어구(속어), 수수께끼, 속담, 표어, 설화”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분류한다. 관용표현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서 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고정된 표현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다른 언어 공동체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가장 좋은 번역방법은 TT 언어권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을 찾아 옮겨주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의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라는 속담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说曹操, 曹操就到(조조에 대해 이야기하니 조조가 나타난다)”로 번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소’가 그렇듯 이처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의미를 풀어 번역하더라도 부연설명 없이 혹은 부연설명이 있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해음(諧音)’¹⁷⁾과 관계된 관용표현을 번역하는 것은 언어유희와도 맞닿아 있어 번역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ST의 언어장치다. 예컨대, 중국인들은 선물을 할 때 패종시계나 탁상시계, 우산 등을 선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패종시계나 탁상시계를 뜻하는 ‘钟’과 ‘끝나다’라는 의미의 ‘终’의 발음이 ‘zhong’으로 같고, 우산의 ‘伞’과 ‘헤어지다’라는 의미의 ‘散’의 발음이 성조는 다르지만 ‘san’으로 같기 때문이다. ‘해음’은 중국인의 생활 깊숙이 체화된 언어적 문화현상인 셈이다(황지연 2011: 234).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3)

ST : 伞就是散, 在婚礼上送伞是什么意思呢?

PrTT : 우산은 부부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던가(중국어에서 우산의 산의 발음과 흩어진다는 산의 발음이 같으므로 부부가 헤어진다
는 의미를 갖는다-웁긴이). 결혼식에 우산을 선물하는 의미는?

StTT1 : 우산 산(傘)과 같은 음인 흩을 산(散)은 헤어진다는 뜻이다. 결혼식 선물로 우산을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17) ‘해음’은 뜻글자인 중국어의 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의 한자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은 한자를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에 해당하는 운모와 성모, 성조의 결합만으로 생기는 제한된 소리만으로 표현하기는 역부족이며, 이에 따라 수많은 한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음’현상이 발생한다.

StTT2 : 중국에서 우산은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식 날에 우산을 선물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StTT3 : 문 앞에 이르러서야 손에든 우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중국어에서 우산의 발음과 헤어짐을 뜻하는 글자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우산은 부부가 헤어진다는 뜻을 갖는다-옴긴이)
‘결혼식 날 우산 선물을 하다니, 얼른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역주를 통해 부연 설명한 번역은 PtTT와 StTT3이다. 그러나 둘의 차이를 보면, ST에서 드러나 있는 문장 “伞就是散”에 대해 PrTT는 우선 “우산은 부부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던가”로 번역하여 준 후, 괄호 안의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하여 준 반면 StTT3은 아예 괄호 안의 역주로만 처리해주었다. 이렇게 역주로만 처리해주어도 해당 문장의 경우, 앞뒤 문장의 문맥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우산이 헤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은 중국인이란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ST 내에 나타나는 문장 자체가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StTT1은 한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풀어 번역하여 주었고, StTT2는 우산이 왜 헤어짐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누락시키고, “중국에서 우산은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의미만 풀어 번역하였다.

(사례 4)

ST : 当然能, 俗话说嫁鸡随鸡嫁狗随狗¹⁸⁾, (...)

PrTT : 당연히 잘 살죠. 속담에 닭과 함께면 닭이 되고 개와 함께면 개가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

StTT1 : 당연하죠. 옛말에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

StTT2 : 당연하죠. 신랑에게 맞춰 잘 살아가겠죠. (...)

StTT3 : 당연하죠. 여자가 출가하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잖아요. (...)

18) “嫁鸡随鸡, 嫁狗随狗”에 대해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는 글자의 뜻풀이 없이 바로 “여자는 출가 후에 싫든 좋든 일생토록 남편을 따라야 한다”라는 속뜻을 설명한다. 이 속담의 뜻풀이를 하자면, ‘닭에게 시집가면 닭을 따르고, 개에게 시집가면 개를 따른다’라는 의미다.

위의 사례는 속담 번역이다. PrTT는 직역의 방식을 택하였다. 직역을 하여도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한국인이 읽기에 어색하게 느껴진다. StTT는 PrTT와는 달리 좀 더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을 택한다. StTT1은 한국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자주 쓰이는 관용표현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StTT2와 StTT3은 각각 ‘신랑에게 맞춰 잘 살아가다’와 ‘여자가 출가하면 남편을 따른다’라고 하여 속담 안에 담긴 속뜻을 풀어 일반화하여 번역하였다.

3.2.4 소결

위에서는 ‘문화소’의 번역방법을 살펴보고,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의 번역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각각의 번역방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소’를 ‘고유명사’, ‘음식’, ‘관용표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그 번역방법을 살펴보고, 비록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ST와 TT를 일대일로 대조하여 정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아마추어 번역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덧붙여 번역하는 현상이 전문 번역가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 텍스트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충실성’이나 ‘가독성’이나 하는 것이다.¹⁹⁾ 이는 곧 문학 번역에서 ‘번역이 얼마나 원문의 내용에 맞고 부합하느냐’와 ‘독자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도록 잘 읽히느냐’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고려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살펴본 소설 텍스트에서 나타난 ‘문화소’의 번역을 ‘충실성’이나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StTT에서 PrTT보다 ‘부연설명’을 덧붙여 주어 번역하는 방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가독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충실성’의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리한 <표1>과 <표2>, 그리고 사례들을 통하여 볼 때, PrTT는 ‘부연설명’ 대신 독자가 유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직역하거나, 상위어를 사용하거나, 일반화하는 반면, StTT는 각각

19) 2005년과 2007년 출간한 영미문학연구회의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번역본의 등급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의 TT별로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지만 PrTT보다는 '부연설명'을 통하여 원문의 내용을 최대한 모두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TT에서 나타나는 '접속 표지'의 번역 양상

접속 표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문두에 나타나는 접속 부사 이외에도 문중에 등장하는 접속 조사,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나타나는 연결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두에 나타나는 '접속 부사'에 국한시켜 TT에서 나타나는 번역양상을 살펴보겠다. 또한 본고에서는 안정아 외(2014)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 '접속부사' 이외에도 '준 접속표현'과 '기타 부사어(문두)'²⁰⁾를 함께 포함시켜 살펴본다. 이때, ST에서는 접속 표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TT에서 번역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낸 경우만 대상으로 하여 본다. 그 결과, ST에서 나타난 접속 표지들이 그대로 TT에서도 재현된 경우를 제외하고 TT에서만 나타난 접속 표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TT에서 부가되어 나타난 접속 표지 출현 빈도

번역가 접속 표지	PrTT	StTT1	StTT2	StTT3	총합계
게다가	1				1
결국	1		1	1	3
그 순간	1				1
그래	1				1
그래서	2	1			3
그러나	5	5			10
그러니		1			1
그러니까	2				2
그러다	1				1

20) 안정아 외(2014: 185)는 이를 접속부사, 준 접속표현, 기타 부사어(문두)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첫째, 접속부사로는 “게다가,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데(…)” 등을 제시하고, 둘째, 준 접속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 등이 있고, 셋째, 기타 부사어(문두)로는 “결국, 나중에, 드디어, 먼저, 아무튼, 이제, 일단(…)”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13	5		1	19
그런다고		1			1
그런데	3				3
그럴 때마다		1			1
그렇게 된다면	1				1
그렇다면			1		1
그렇지만	3				3
그로부터	1				1
그리고	9	4	4		17
그리곤	1	1			2
또다시	1				1
비로소	1				1
비록			1		1
이 때		1	2		3
이번에도		1			1
잠시 후	2				2
조금 후	1				1
하지만	2	1	5	2	10
총합계	52	22	14	4	9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TT에서 나타나는 접속 표지의 종류는 27개 나타났고, 이를 번역가별로 살펴보면, PrTT 총 20개, StTT1은 11개, StTT2는 6개, StTT3은 3개로 나타났다. 또한 출현빈도로 볼 때 PrTT는 52회, StTT1은 22회, StTT2는 14회, StTT3는 4회로 나타나, 그 가짓수에서 나타난 차이만큼 출현 횟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PrTT에서 ST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접속 표지의 명시화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텍스트의 생산자는 수용자가 문장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설정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접속 표지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표지를 명시적으로 접속 표지를 사용한다(나은미 2006: 51). 번역자를 ST와 TT의 ‘중개자’로서 ST의 텍스트의 1차 수용자이자 TT의 생산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곧 번역가가 ST로부터 해석한 내용을 ‘탈언어화’하여 TT의

언어로 '재표현'하는 과정²¹⁾에서 2차 수용자인 TT의 독자가 문장 간 관계를 해석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과 같다. 물론 중국어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 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통사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²²⁾ 중한 번역을 할 때, 번역가는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접속어를 넣어 번역해주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5)

ST : 营房在霎时间混乱起来, (Ø) 远处哨楼上的探照灯打过来, 枪声噼啪地在空中爆响。

PrTT : 훈련부대는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멀리 초소에서 탐조등이 켜지고,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StTT1 : 병영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Ø) 멀리 초소의 탐조등이 그녀들을 비추고 뒤이어 '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StTT2 : 실내는 이수라장이 되었다. (Ø) 저 멀리 초소에서 비추는 감시등이 그들이 있는 곳을 향했고, '따양!' 하는 총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StTT3 : 순식간에 훈련대가 어지러워졌다. (Ø) 멀리 있는 초소에서 탐조등을 비추었고, 총소리가 탕탕하고 하늘에 울려 퍼졌다.

ST에서는 표시와 한 바와 같이 앞뒤 문장²³⁾에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PrTT에서는 '그러자'로 앞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준다. PrTT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접속 표지는 '그러자'이며, 출현빈도 순으로 '그러자(13)>그리고(9)>그러나(5)'로 나타난다. '그러자'는

21) 해석이론의 삼각형 모델에 따르면, 번역과정의 과정 '탈언어화(Deverbalization)'를 통해 ST의 언어적 표현, 또는 문화적 한계를 넘어 '의미도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얻어진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의미 '센스(Sense)'를 TT의 언어로 '재표현(Reformulation)'하는 것이라 하였다(정호정 2008: 133-135).

22) 반면 한국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속 부사, 접속 조사, 연결 어미 등 문두, 문중, 문말에 쓰이는 접속 표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초보자의 경우, 중국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과도한 중국어의 접속사 사용으로 어색한 중국어를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3) 중국어는 문장의 단위가 마침표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쉼표로 끊길 수 있다.

접속 부사가 아니라²⁴⁾, 동사 ‘그러다’의 활용형으로서 연결 어미 ‘-자’가 붙어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나 사실이 잇따라 일어났음을 나타내 준다²⁵⁾. ‘그러자’가 이처럼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설 텍스트에서는 하나의 장면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행위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건이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한 인물의 말이나 행위가 끝나고 다른 인물의 말이나 행위가 시작될 때 혹은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또 다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 ‘그러자’를 덧붙여줌으로써 ‘인물 간 행위 전환’ 또는 ‘사건 발생의 연속성’을 표시해주는 연결 고리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PrTT에서 ‘그러자’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접속 표지는 ‘그리고’와 ‘그러나’이다. ‘그리고’와 ‘그러나’는 각각 그 의미 기능으로 볼 때, ‘부가’와 ‘역접’의 의미를 나타낸다(최진실 2010: 252). 한희정 외(2016: 182)는 <세종-민족문화연구원 코퍼스 확장판>의 총 116,065,151 어절의 코퍼스 가운데 접속 부사 출현 빈도를 산출한 결과, 구어와 문어의 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가 270,673 회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가 191,122회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어 자체 내에서도 ‘그러나’와 ‘그리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빈도가 한국인의 언어 습관을 일부 반영한다고 할 때, 코퍼스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는 있지만 TT에서 ‘그러나’와 ‘그리고’가 명시화되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StTT1는 ‘그러자(5)=그러나(5)>그리고(4)’의 순으로 접속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접속 표지의 출현빈도로 볼 때 PrTT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지만, 출현 빈도의 경향성은 PrTT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StTT2는 ‘하지만(5)>그리고(4)’의 순으로 나타났다. StTT2에서 ‘그러나’가 한 번도 출현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 표지로 ‘하지만’을 많이 쓰는 번역가

24) 본고에서 적용하기로 한 안정아 외(2014)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준 접속 표현’에 해당한다. 실제로 ‘그러자’는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기열(2003)은 국어의 접속부사의 특징과 그 기능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러자’를 접속 부사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학자마다 접속 부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25)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mn_id=62&mcfaq_seq=4960) 참조

의 개인적인 언어습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StTT3은 ST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접속 표지를 명시화한 부분은 총 네 군데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소설 텍스트의 번역의 방법과 특징을 각각 ST와 TT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ST내에서 나타나는 '문화소'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나는 번역방법과 번역과정에서 번역방법을 선택하면서 고려해야할 점을 살펴보았고, ST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접속 표지가 TT내에서 명시화되어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또한 ST내의 '문화소'를 처리하는 번역방법과 TT 내에서 나타나는 접속 표지의 출현빈도를 통하여 '전문 번역가'와 '아미추어 번역가'의 TT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우선 ST의 측면에서 '문화소'의 번역양상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고유명사'였으며, 그 다음이 '음식'과 '관용표현'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화소'를 '고유명사', '음식', '관용표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유명사'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설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이름은 대부분 어떤 언어권의 소설이든 대부분이 소리 나는 대로 '음차'로 번역한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참고로 번역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인의 이름과 호칭을 번역할 때, 반드시 중국어권 내에서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름이 중국어의 언어적인 특징과 결합하여 이름 자체가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묘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 이름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을 통하여 의미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음식'의 번역에서는 작품 내에서 해당 음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는 한 '상위어'로 번역하는 것이 독자의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 역주의 방식으로 과도한 부연설명을 덧붙이거나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번역은 오히려 독자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관용표현'의 번역에서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관용표현이 존재한다면 이로 대체하

여 번역하여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다면 번역의 과정에서 문화적 색채를 감소시키기는 하나 독자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일반화’의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해음’과 같이 중국어의 언어와 문화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경우 반드시 이에 관한 의미의 보완을 할 수 있는 번역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나타난 ‘문화소’의 번역방법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PrTT와 StTT의 번역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PrTT보다 StTT의 문장이 다소 길어지면서 ‘부연설명’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전문 번역가’에 비해 ‘아마추어 번역가’가 독자의 ‘가독성’보다는 원문의 ‘충실성’을 보다 중시하여 선택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TT의 측면에서, ST에는 없지만 TT에서 나타나는 ‘접속 표지’를 살펴본 결과, PrTT에서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병렬 텍스트로 구축한 전체 TT에서 나타난 92회 가운데 52회로 절반 이상이 PrTT에서 나타났다. 이 점으로 비추어 보아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는 ‘접속 표지’의 사용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PrTT의 ‘접속 표지’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현빈도에 따라 ‘그러자>그리고>그러나’의 순으로 나타난다. 사실 StTT1과 StTT2에서도 그 ‘접속 표지’의 전체 빈도는 낮지만, 그 안에서는 ‘그러자, 그리고, 그러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접속 표지’를 텍스트의 생산자가 사용자의 “문장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설정”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본다면, ‘전문 번역가’에서 가장 많은 ‘접속 표지’의 사용이 나타났다는 것은 ‘전문 번역가’는 ‘아마추어 번역가’보다는 ‘독자’라는 대상을 더 고려하면서 번역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ST와 TT를 나누어 각각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을 고찰하고,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간에 나타나는 번역양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분석 양상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의 특징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코퍼스를 여러 작품으로 확대하여, 정성분석뿐만 아니라 통계검증을 통한 정량분석을 시도한다면 전문 번역가와 아마추어 번역가의 번역특징을 보다 객관화하여 문학번역에서 최선의 번역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0)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4): 7-23.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7(2): 31-51.
- 김혜림 (2014) 「한중 번역의 단순화와 명시화 연구 - 신문사설 코퍼스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237-262.
- 김혜림, 장애리, 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 김효중 (2005) 「문학작품 번역에서 문화 적용의 문제」, 『어문학』 519-539.
- 나은미 (2006) 「2006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텍스트의 내용과 접속의 표지의 상관관계 연구-소설『익명의 섬』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27: 47-68.
- 노진서 (2007) 「한-영 시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번역 문제 - 사랑에 관한 개념적 은유 표현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9(1): 31-53.
- 민현식 (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17-50.
- 박상수 (2013) 「영-한 번역을 통한 표층결속의 비교분석」, 『언어과학연구』 64: 113-132.
- 신진원, 박기성 (2011)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2(2): 129-155.
- 안기섭 (2011) 「중국어 접속표현(Connectives)의 유형론적 특징」, 『중국인문과학』 49: 73-110.
- 안정아, 남경완 (2016)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의 접속 표지 연구」, 『어문논집』 77: 177-207.
- 야오강 (2012) 「중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욕설표현의 번역 연구 - 쑤통(蘇童)의 『이혼지침서』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4): 145-167.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 이명아 (2016) 「한중 이름 호칭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철학사상문화』 21:

192-214.

- 이상원 (2002) 「텍스트성을 기준으로 한 노-한 번역 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6: 125-144.
- 이지민 (2015) 「팬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번역학연구』 16(2): 165-186.
- 장기열 (2003) 「연구논문: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19: 175-194.
- 장운선 (2010) 「쑤통(蘇童) 소설 속 여성인물의 타자(他者)화 -<처첩성군(妻妾成群)>, <홍분(紅粉)>, <부녀생활(婦女生活)>, <령일종부녀생활(另一種婦女生活)>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32: 139-162.
- 전수정 (2007) 『홍분』, 서울: 아고라. (蘇童 (2004) ‘紅粉’, 上海: 上海文艺出版社)
- 정호정 (2008)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최진실 (2009) 「접속 부가어의 영한번역 연구」, 『언어학』 55: 107-127.
- 최진실 (2010) 「영한 번역에서의 텍스트 구조와 접속 부가어」, 『번역학연구』 11(1): 245-269.
- 최진실 (2011) 「번역의 방향과 접속 부가어의 의미」, 『번역학연구』 12(2): 207-232.
- 한영자 (2014) 「쑤통(蘇童) 단편소설에 나타난 콤플렉스 양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외국학연구(27)』 356-391.
- 한희정, 한정환 (2016) 「언어 사용역에 따른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175-202.
- 황지연 (2011) 「논문(論文): 자동차 브랜드 번역에 나타난 해음 문화」, 『중국학논총』 31: 219-241.
- 陈乐. (2003) ‘女性难以走出的迷幻花园:论苏童的小说《红粉》’, 《广东教育学院学报》 23(3): 69-73.

<인터넷 자료>

- 한윤정 (2006. 6. 13) 「“소설…자기 내면과의 계약”…쑤통·전형준 교수 대담」, 『경향신문』, 2018년 1월 24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Method of the Cultural Words and Conjunctive Marker in Chinese-to-Korean Literary Translation

Lee, Hyun-J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 translation method of 'cultural-specific concepts(CSCs)' and culture-bound terms(CBTs) in source text of Chinese novel, and also examines two groups of translators, the professional and amateur, based on their translation characteristics of using 'conjunctive marker' in target text.

Two main findings emerged from the analyses. First, the effective translation method has been discussed based on three expressions of CSCs : characters' names, Chinese food names and idiomatic expressions. It has been shown that the 'borrowings' was mostly common in translating characters' name, and 'using hypemym' was the most effective but less cultural characteristic translation method in translating food names, and the 'explanatory translation' method was mostly used in translating idiomatic expressions in order to help target readers understanding the contexts.

Second, the term 'conjunctive marker' has been generally understood as 'conjunctive adverb', however, this paper defines the 'conjunctive marker' as a conjunctive word of sentence-starting-part, rather than a limited term of conjunctive adverb.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amateur translators is shown in the frequency of using conjunctive marker in target text : professional translators used conjunctive marker more often than amateur translator.

This study appears to be the first to analysis the translation characteristics

of Chinese-to-Korean novel text from both aspects of source text and target text.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wo translation groups has been analyzed.

▶ Key Words: translation method, corpus-based translation study, literature translation, cultural-specific concepts, conjunctive marker

▶ 주제어: 번역방법, 코퍼스 기반의 번역연구, 문학번역, 문화소, 접속 표지

이현주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zhou99@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코퍼스 기반, 번역방법 및 전략, 번역문제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6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